

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녹두꽃

2024

봄

55

특집호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출처: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진설명

1993년 출범한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이하: 동단협) 창립대회 제2부 '다시 쓰는 사발통문' 행사에서 동단협 대표자들이 참여 단체 이름을 써넣는 장면이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눈앞에 둔 1993년 12월 13일 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창립식을 가진 동단협 관계자들은 전봉준 유적(사적 293호, 정읍시 이평면)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쓰는 사발통문'이라는 주제 아래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결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녹두꽃

2024

봄
·
특집호

55

차례

녹두칼럼 임진택 이애주문화재단 상임이사	02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집	04
뉴스초점	16
고창군, 전봉준 장군 동상 ‘義의 깃발 아래’ 제막식 2024 규장각 세계기록유산 특별전 ‘우리의 기억, 인류의 기억’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 ‘비원(悲願); 긴 여정의 시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	24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2024년 시무식, 동학농민군상 및 추모관 참배 동학농민혁명 유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워크숍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5차 이사회, 5기 제4차 자문위원회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언론 홍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웹툰 공모전 시상식	
유족 인터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학운의 증손 송기숙	30
인권과 평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르포(Repo)	36
한국 민주주의 뿌리를 생생하게 느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Thomas Giammarco(토마스 지암마르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의미를 되새기며 김영순 해설사 외 3	
지역 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 단체 행사	44
교육·체험, 방문 단체 녹두꽃, 다시 피다	50
2024년 교육 체험·해설 프로그램 박물관, 기념공원, 기념관 프로그램	54
언론에 보도된 동학농민혁명	55



『녹두꽃』을 전자책으로
만나 보세요.

구독신청
☎ 063 530 9416

통권 55호 발행일 2024년 4월 1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 530 9400 팩스 063 538 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편집디자인·제작 두인

창작 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작업

올해 2024년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나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던 1994년 당시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민국협(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의 임원으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 기획하였고, 그중 성과의 하나가 정읍시 일원에서 열린 ‘고부봉기 역사맞이곳’이다.

나는 고향이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인데, 어렸을 적 우리 마을 이름이 접주리였다. 접주리라는 이름의 연원이 ‘배[舟]가 닿는다’는 접주(接舟)라는 뜻인지, ‘동학접주(東學接主)가 살던 마을’이었던지는 아직도 풀지 못한 의문으로 남아 있다. 어쨌거나 원평과 태인이 동학 대접주들이 웅거하던 지역이었다는 사실로 보아 내 고향 접주리가 동학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설레는 기대’가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했다.

내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존재를 처음 들어 알게 된 경위는 역사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술 작품을 통해서였다. 대학 시절 시인 김지하 선배가 동학을 소재로 시나리오를 쓰고 하길종 감독이 영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작품의 제목이 「태인」이었다. 우금티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이 후퇴를 거듭하다가 주력 부대가 마지막 항전을 벌인 곳이 태인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았다. 얼마 후 대학 졸업을 앞둔 1973년, 작곡가 이종구 형이 음악대학 졸업작품으로 「동학」이라는 제

목의 교성곡(交聲曲-칸타타)을 발표하였다. 소리를 배운 적 없는 내가 음대생 졸업 작품에 찬조 출연해서 성악 아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후 1982년에 군사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익산으로 피신, 은거하던 작곡가 겸 가수 김민기가 불현듯 희곡을 하나 써서 서울로 올라와 ‘연우무대와 함께 연극을 올렸는데, 그 작품이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멈춰선 저 상여는 상주도 없다더냐」였다. 당시는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여파로 사회 전체가 암울하였고, 「멈춰선 저 상여는…」의 작품 분위기 또한 대단히 무거웠다. 이때 김민기가 나한테 급하게 극중 해설자 역할을 판소리 도창(導唱)으로 해줄 수 없느냐 물어왔다. 나는 쾌히 승낙하고 ‘안핵사 이용태 만행(蠻行) 장면’과 ‘황토현 전투 승리 장면’을 사실로 짜서 도창으로 실연(實演)하였다. 과격적인 풍자의 통쾌함이 무겁던 객석의 분위기를 일거에 포복절도(抱腹絶倒)하는 분위기로 바꾸었다. 뜻밖의 성과에 나는 동학농민혁명사 전체를 판소리로 만들어 그 정신을 새겨보자는 생각을 이때부터 가졌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었다. 나는 비로소 ‘동학 판소리’ 창작을 시도하였다. 100주년이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 비평사’가 선뜻 창작기금 후원을 약속해 준

임진택
이애주문화재단 상임이사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나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다섯 인물(또는 사건)을 판소리로 창작하는 계획을 제안하였고, 그 첫 작품으로 '동학 판소리'를 생각하였다. 이후 작품을 짜느라 몇 달을 꿈꿨지만 좀처럼 풀리질 않았다. 난감한 문제는 '수운·해월의 동학사상과 갑오년 농민봉기와의 관계 설정'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점과 '남접'의 실체는 무엇이며, 남접과 북접 간의 갈등과 연합의 실체는 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어쨌든 나는 처절한 우금티 전투 대목을 제대로 형상화할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완성에 미치지 못한 작품을 시연(試演)했다. 스스로 평가하자면 낙제점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0년, 내가 환갑이 되었다. 나는 일찍이 서원(誓願)을 세운 '창작 판소리 열두 바탕'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였다. 「백범 김구」 등의 작품 창작에 힘을 기울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읍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22년에 「녹두장군 전봉준」을 창작판소리로 다시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나로서는 1982년 「멈춰선 저 상여는…」 이후 독자적인 작품을 구상한 지 실로 40년 만의 일이자 열두 번째 창작 판소리 작품이다. 이렇게 하여 완성한 창작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은 2022년 가을과 겨울, 정읍·전주·서울에서 공연하였다. 그리고 2023년 겨울 서울에서 다시 공연하였다. 나를 비롯하여 왕기석·송재영 명창이 함께 무대에 오른 3시간짜리 대작(大作)인 이 작품에 대한 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수운 최제우 선생 탄신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겪고 있는 불의와 폭력, 불평등과 불공정, 연성(軟性) 검찰 독재, 외세의 간섭과 분단, 가중되는 전쟁 위기, 생태 교란

과 기후 위기는 130년 전 정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근래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때 창작 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 대(大)위기의 시대, 전 지구적 대(大)전환의 시대에 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이 「동학사건」을 「혁명적」 차원뿐 아니라 「개벽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확장해 나가는 뜻깊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진택(林振澤)

1950년 전북 김제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이애주문화재단 상임이사, (사)민족예술창작원-마당판 예술 총감독을 맡고 있으며,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한때 방송국(TV) 프로듀서로 재직하다가 1981년 강제 해직되었다. 이후 '광대'를 자칭하며 '마당극'과 '창작판소리' 창출과 정립에 힘써왔다. 그 동안 창작판소리 열두 바탕의 일환으로 「백범 김구」, 「다산 정약용」, 「오월광주 윤상원가」, 「대한민국 안중근」, 「전태일」, 「녹두장군 전봉준」 등의 사설을 직접 쓰고, 이를 창작·공연하였다.

2024년 5월 11일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정읍 황토현)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기본방향으로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시>, <동학농민혁명 국제 학술대회> 등 규모 있는 사업을 펼침으로써 21세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1960년대~1980년대 /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1960년 4·19혁명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역사학자 동빈(東濱) 김상기, 치암(痴菴) 신석호,
정읍 영원면 출신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백봉(白峰)

1960~1980 나용균 등이 1962년 6월 서울에서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협회(회장: 김상기)를
결성하였다. 이 시기에 식민사학(植民史學)

극복 필요성이 제기되며 역사학계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권에서도 정권의 정통성 미화를 위해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이념과 가치를
편취(騙取)하였다.

1895~1950

1895년~1950년대 / 동학농민혁명 왜곡과 축소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이후 긴 시간 동안 반란과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인식이 공존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동학(東學)이라는 사교(邪敎) 집단의 반란으로
왜곡되고, 전라도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민란으로
축소되었다.

이런 인식은 해방 이후 동서 냉전 체제 구축 과정에서
민족분단, 한국전쟁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바로잡히지 못하고 고착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인류의 유산으로 우뚝 서다

1894년 정월, 전라도에서 발원하여 전국으로 확대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뿌리이다. 또한,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 일어난 반일(反日) 민족 항쟁이다.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하늘이라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은 21세기 산업자본주의 시대 술한 병폐를 낳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각자위심(各自爲心)의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명받고 있다.

1994

1994년 100주년 기념사업 / 대중적 역사 인식 전환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으로 과거사(過去事)에 대한 재정립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맞물리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힘있게 펼쳐졌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그 의미가 대중적으로 재인식되었다.

2010~2023

2010년~2023년 /

기념사업 기반 구축 및 정신 선양사업 활성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의 결실로 110주년이던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125주년이던 2019년에는 기념일이 제정되어 매년 정부 주최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128주년이던 2022년에는 정읍 황토현전적(사적 295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로 742) 일대 약 30만 m² 부지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문을 열었다. 나아가 129주년이던 2023년 5월에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185건, 13,132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주요 사업			
구 분		주요 추진 사업	비 고
1954년	60주년	전봉준 단소 건립	정읍시 이평면 조소리
1963년	69주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정읍 황토현전적
1994년	100주년	10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적 전개	유족회, 기념단체 창립
2004년	110주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법률 제15262호 정읍 황토현전적
2018년	124주년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	서울 종로구 서린동
2019년	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제정	5. 11. 황토현전승일
2022년	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	정읍 황토현전적
2023년	129주년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총 185건(13,132면)



전봉준 단소 건립 기념사진(1954)



동학농민혁명 60주년, 전봉준 단소 건립(1954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제막식 참석(1963. 10. 3.)



동학농민혁명 69주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제막: 1963. 10. 3.)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전주 입성 기념대회(1994, 전주 풍남문 광장)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대회 전야제(1994, 전북대 앞 실내체육관 광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총회(1994)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고부봉기 역사맞이 굿(1994)



동학농민혁명 11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2004)



동학농민혁명 110주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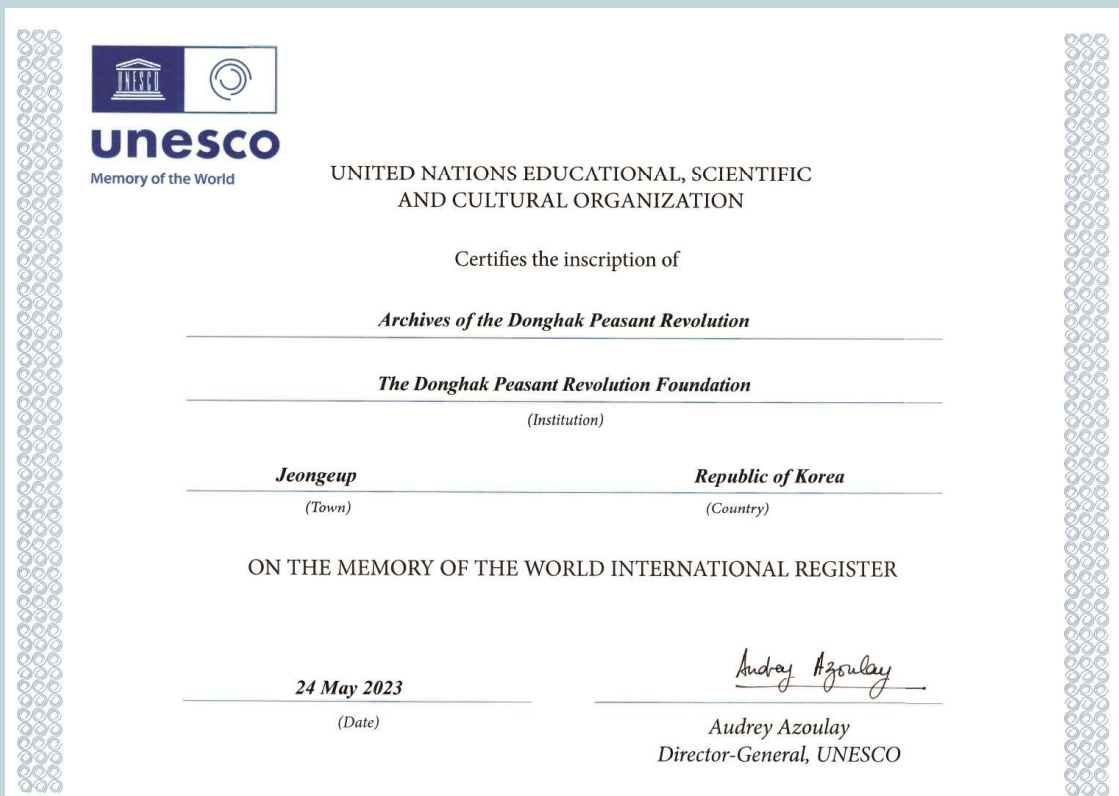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124주년,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서울 종로, 2018.)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정읍 황토현 전적, 2022.)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건립(정읍 황토현 전적, 2022.)



동학농민혁명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023. 5. 24.)



유네스코 인증서 전달(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2023. 8. 29.)

기념대회 및 기념식 추진 현황			
행사명	개최연월일	주최	개최 지역
제100주년 기념대회	1994. 04. 30.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전주시, 전주시청 광장
제112주년 기념대회	2006. 12. 08.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공주시, 공주우금티전적
제113주년 기념대회	2007. 11. 09.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서울시, 경복궁 마당
제114주년 기념대회	2008. 11. 01.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태안군, 태안군청
제115주년 기념대회	2009. 11. 07.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장흥군, 탐진강변
제116주년 기념대회	2010. 10. 29.	(특)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제119주년 기념대회	2013. 10. 18.	(특)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보은군, 보은문화원 강당
제120주년 기념대회	2014. 10. 11.	(특)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족회, 천도교	서울시, 서울시청 강당
제121주년 기념대회	2015. 10. 12.	(특)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족회, 천도교	서울시, 국립중앙박물관
제122주년 기념대회	2016. 10. 11.	(특)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족회, 천도교	서울시, 백범기념관
제123주년 기념대회	2017. 09. 19.	(특)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족회, 천도교	정읍시, 황토현전적
제124주년 기념대회	2018. 10. 10.	(특)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족회, 천도교	홍천군, 자작고개전투지
제125주년 기념식	2019. 05. 11.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광화문 광장
제126주년 기념식	2020. 05. 11.	문화체육관광부	정읍시, 황토현전적
제127주년 기념식	2021. 05. 11.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경복궁 마당
제128주년 기념식	2022. 05. 11.	문화체육관광부	정읍시, 황토현전적
제129주년 기념식	2023. 05. 11.	문화체육관광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제130주년 기념식	2024. 05. 11.	문화체육관광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제 100주년 기념대회(전북 전주, 1994.)



제113주년 기념대회(서울 경복궁 앞마당, 2007.)



제115주년 기념대회 거리 행진(전남 장흥, 2009.)



제119주년 기념대회(충북 보은, 2013.)



제125주년 기념식(서울 광화문 광장, 정부 주최 첫 기념식, 2019.)



제125주년 기념식(서울 광화문 광장, 정부 주최 첫 기념식, 2019.)



제120주년 기념대회(서울특별시청 대강당, 2014.)



제123주년 기념대회(전북 정읍 황토현 전적, 2017.)



제128주년 기념식(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2022.)



제126주년 기념식(전북 정읍 황토현 전적, 2020.)



제127주년 기념식(서울 경복궁 흥례문 마당, 2021.)



제129주년 기념식(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2023.)

130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 일시** 2024년 5월 11일(토) 11시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용 추모관 헌화(獻花), 식전공연, 주제 영상 상영,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등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국회 특별 전시

- 일시** 2024년 하반기
장소 대한민국 국회 로비(서울)
주제 동학농민혁명, 세계의 역사로(가칭)
내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 전시

- 일시** 2024년 9월 11일 ~ 12월 11일(100일)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내용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총 200여 점 전시 예정
* 사발통문, 유광화 편지, 한달문 편지, 무장포고문, 석남역사 전봉준 공초 등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 문화재청

국제 학술대회

- 일시** 2024년 9월 11일 ~ 9월 12일(1박 2일)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대강당 및 기념공원 일원
주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로 미래로(가칭)
내용 '자유, 평등, 평화, 인권'의 가치를 내포한 세계기록유산 보유국과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세계사적 의미와 가치 고찰 및 국제 연대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 문화재청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일시 2024년 5월 9일(목) ~ 5월 11일(토)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용 세계 혁명의 역사를 가진 도시들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혁명의 가치 새롭게 조명

주최 정읍시

후원 문화체육관광부·전북특별자치도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일시 2024년 5월 11일(토) ~ 5월 12일(일)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및 정읍 향토현전적

내용 제57회 기념제 및 축하공연, 동학농민혁명大賞 및 UCC 공모전 시상식,
체험 및 플리마켓, 기획 행사, 행진 등

주최 정읍시

주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2023)



동학농민혁명기념제(2023)

2024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고창군, 전봉준 장군 동상 '義의 깃발 아래' 제막식



무장포고문을 움켜 쥐고 있는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1월 10일 고창군청 앞 회전교차로 소공원에서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이 펼쳐졌다. 제막된 동상은 '義의 깃발 아래'라는 주제 아래 12인 군상(群像)으로 국경호·강관욱 두 조각가가 공동 제작하였다. 이 조형물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기치였던 '보국안민·제폭구민·척왜양창의'가 새겨진 깃발 아래 전봉준 장군이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을 공포하고, 혁명의 대장정에 오른 순간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공동대표 정남기·진윤식)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건립위원회는 작품공모, 건립지 선정 등은 물론,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 활동도 전개하였다. 나아가 산하에 미술, 역사, 도시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두어 역사적 고증 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동상 건립에는 국민 성금과 군비를 더해 사업비 총 6억 원이 투입되었다.



전봉준 장군 동상 '義의 깃발 아래' 전경



작품 설명: 국경오 조각가

제막식 행사장에서 국경오 작가에게 작품에 대해 물었다.

문 작가님, 이번 동상을 제작하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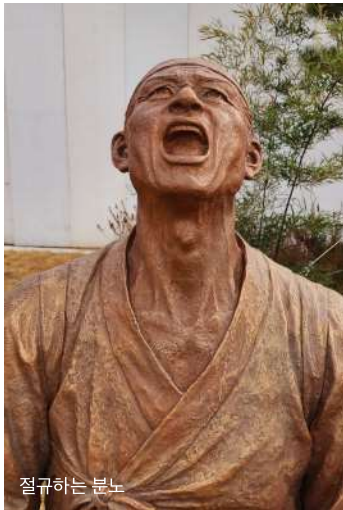
답 이번 작품은 동학농민군의 행군 형태나 총을 겨누는 전투 장면보다는 혁명에 참여한 전봉준 장군과 농민들의 각오와 마음이 어땠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무장포고문을 움켜쥐고 의연하게 앞을 향하는 전봉준 장군의 모습과 여섯 명의 동학농민군의 결의를 사실감 있고 생명력 있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 희생당한 딸을 안고 비통해하는 가족, 새로운 세상을 간구하는 할머니, 미래의 혁명가를 상징하는 소년 등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과 염원을 표현했습니다. 전봉준 장군의 형형한 눈빛과 의연함, 분노하는 농민군의 목과 손, 두려움을 넘어선 눈빛, 비장한 각오와 담대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각각의 표정 하나하나 나올 때까지 조형물을 여러 차례 허물고 다시 작업하였습니다.

문 작품 속 인물들이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입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요?

답 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조형물을 맨발로 흙 위에 서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주변에 자연석을 배치했습니다. 관람자들에게 당시 농민들의 어려웠던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봉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문 동상을 찾아올 관람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요?

답 작품은 작가가 만들지만 작품의 완성은 관람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감상하실 때 외형보다는 동학농민군의 내면을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1894년 갑오년,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일어섰던 선조들의 모습에 깃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규하는 분노



희생당한 딸을 안고 애통해하는 가족상



비장한 각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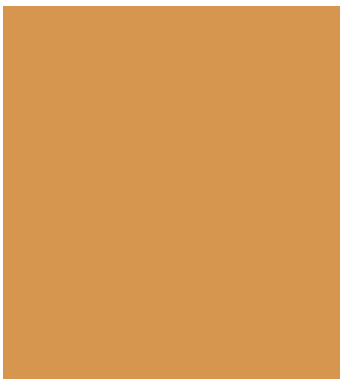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간구하는 할머니상



용맹함



미래의 혁명가를 상징하는 소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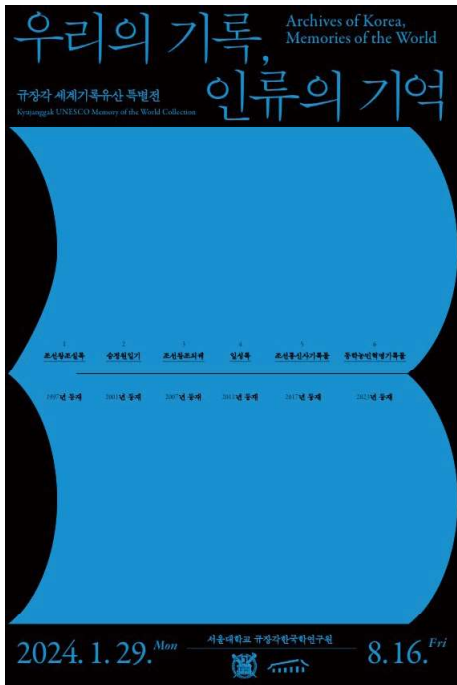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2024 규장각 세계기록유산 특별전 ‘우리의 기억, 인류의 기억’



규장각 세계기록유산 특별전 ‘우리의 기록, 인류의 기억’ 개막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이창숙)은 ‘2024, 규장각 세계기록유산 특별전’을 개막하였다. ‘우리의 기록, 인류의 기억(Archives of Korea, Memories of the World)’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과 함께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열렸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모두 185건으로 이 중 58건의 기록물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일시 2024. 1. 29. ~ 2024. 8. 16.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시실

내용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6종 전시(동학농민혁명기록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지략, 조선통신사기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전시

※「전봉준 공초(全琫準供草)」는 1894년 12월 2일 전봉준이 체포된 후 다섯 차례 진행된 법정 심문 기록이다.
혁명의 배경과 목적, 전개과정, 동민군의 규모와 전봉준의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史料)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안내판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

‘비원(悲願); 긴 여정의 시작’



광주광역시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비원(悲願); 긴 여정의 시작’을 주제로 ‘2024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記念展)’을 열었다. 은암미술관 주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울산노동역사관이 공동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후원한 이번 기념전에는 대한민국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민중미술 작가 17명이 참여, 우리나라 민족민주운동의 시원(始原)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판화, 회화,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로 형상화하였다. 기념전은 광주광역시 전시예 이어 3월~5월 울산노동역사관, 6월~7월 부산민주공원에서 각각 전시한다.

전시된 작품은 홍성담의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2020)을 비롯하여 김준권의 「새야 새야」(1987), 김화순의 「붉은 우물」(2024), 서지연의 「Anima Mundi 2024 shaman king 이소사」(2024), 전정호의 「백산」(2023)과 「비모리 전투 삼형제」(2023), 전상보의 「만남」(2024), 신학철의 「유월 항쟁도」(1999), 이철수의 「동학연작-기민행렬2」(1984), 김우성의 「눈보라」(2024) 등이다.

일시 2024. 2. 15. ~ 2024. 3. 14.

장소 광주광역시 은암미술관

내용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다양한 장르로 형상화한 민중미술 작가의 작품전





홍성담,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 캔버스에 아크릴(910×270cm), 2020. 동학과 농민혁명의 맥락을 길게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준권, 「새야 새야, 목판 채색(91×78cm), 1987.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이 민중을 일깨우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김화순, 「붉은 우물」, 캔버스에 아크릴(160×390cm), 2024.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제주4.3, 광주민주화운동, 광화문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담았다.



서지연, 「Anima Mundi 2024 shaman king 이소사」, 설치영상, 2024. 설치 영상 기법으로 민중의 한을 표현하였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2024년 시무식, 동학농민군상 및 추모관 참배



헌화, 불멸 바람길(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묵념, 추모관

2024년 갑진년(甲辰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정읍시는 1월 2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하였다. 기념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시설물 ‘불멸, 바람길’(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과 동학농민혁명 박물관 내 추모관에서 헌화와 묵념 등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주영채(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이학수 정읍시장,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고부봉기기념사업회, 고부관아복원추진위원회 등 관련 단체 대표자와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유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워크숍



2023년 12월 27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세미나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유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기념재단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완주군, 장수군 등 9개 광역 및 시군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2023년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추진 성과와 2024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23년 12월 7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제18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서 33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에서 참여자 30명과 유족 1명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등록이 확정된 참여자는 3,815명이며, 유족은 13,176명이다.

심의 회의에는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위원장을 비롯하여 구선희(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김춘성(천도교 교서편찬위원),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주영채(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정향미(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代) 이수원 전통문화과장)) 위원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5차 이사회



2024년 2월 27일(화) 오후 2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회의실에서 5기 제5차 이사회가 열렸다. 심의의결 안건 ‘2023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운영 및 정신 선양사업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4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과 전문위원 운영 계획안’이 보고되었다. 이어 130주년 기념식 개최 및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및 국제 학술대회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에는 신순철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정해곤(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代 문화체육관광부 이수원 전통문화과장)), ▲이재운(전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삼성(전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심형기(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정선원(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위의환(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천진기(전 국립민속박물관장), ▲왕기석(전 국립민속국악원장), ▲박흥규(기념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4차 자문위원회



2024년 2월 19일(월) 오후 2시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5기 제4차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회의는 기념재단 5기 제5차 이사회에 상정할 2023년도 결산(안)을 검토, 130주년 기념식,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및 국제 학술대회 추진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 논의 이후 13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자문이 이루어진 회의에는 신순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김경민(백제예술대 뮤지컬과 겸임교수), ▲김명성(전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김봉승(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김용달(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김현승(변호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손주갑(동학농민유족회 대의원), ▲이기전(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정신(장흥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전성진(전 MBC전주문화방송사 사장), ▲박흥규(기념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언론 홍보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JTV 전주방송 '클릭 이 사람'(2.25. 방영)



MBC 전주방송 '반갑습니다'(3.30. 방영)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의의 설명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언론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의의와 함께 13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 중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특별전과 국제 학술대회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오는 5월 11일 성대하게 거행될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전북일보』(1.21. 게재)에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으며'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반란으로 축소·왜곡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재평가되기까지 과정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기념재단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JTV 전주방송 「더 1894」(12회)와 『전북일보』(40회)에 3월부터 소개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힘쓰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언론 홍보

JTV 전주방송 「더 1894」: 3.12.~5.28.(12회) 19:20 방영

『전북일보』: 4월~12월(40회) 연재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웹툰 공모전 시상식

대상 이지현 작가의 「향아설위」 선정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3년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공모전은 전라북도·전주시 공동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 서울신문사 후원으로 2023년 8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54편이 응모됐다.

심사는 동학농민혁명 전문가, 웹툰 전문가, 소설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독창성, 예술성, 대중성, 확장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13명의 작품을 수상 후보로 선정, 이들 작품 중에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10편을 각각 선정하였다.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상 「향아설위」의 이지현 작가, 최우수상 「집으로 가는 길」의 장윤서 작가, 우수상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의 윤희원 작가, 장려상 「녹두」의 오동규 작가 등 12명이다. 대상 수상작 「향아설위」는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우수성, 이

야기 전개의 원활함과 몰입감 등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지현 작가는 수상 소감으로 “역사를 좋아하여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였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역사를 소재로 웹툰 작품 창작에 관심이 많았다. 이번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열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좋은 웹툰 작품을 창작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공모전의 시상금은 총 7,000만 원으로 대상 3,000만 원, 최우수상 2,000만 원, 우수상 1,000만 원, 장려상 각 100만 원이었으며, 지난 2월 27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수상 작품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 게재되어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기념촬영: 수상자 및 시상식 관계자



기념촬영: 웹툰 공모전 수상자



대상 시상: 작품 「향아설위」
좌: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우: 이지현 대상 수상 작가



최우수상 시상: 작품 「집으로 가는 길」
좌: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우: 장윤서 최우수상 수상 작가



우수상 시상: 작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좌: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우: 윤희원 우수상 수상 작가



장려상 시상: 작품 「녹두」
좌: 신영우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소장
우: 오동규 장려상 수상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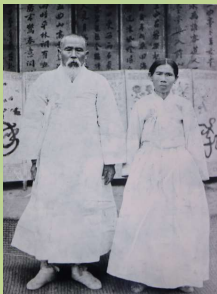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학운의 증손 송기숙



일시 일시: 2024. 2. 19.(월) 14:00 ~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기숙 님 덕

이번 호 유족 인터뷰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학운(宋學運 1846~1939) 님의 증손 송기숙 선생님을 모셨다. 송학운 님은 1894년 봄부터 금산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며, 그해 겨울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후 고향 뒷산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1908년 기독교에 입교한 후 고향 금산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30년 동안 장로로 시무하다 1939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1대(代)
참여자 송학운과
부인 파평 윤씨



2대(代)
아들 송철



3대(代)
손자 송전무



4대(代)
증손녀 송기숙

문 이번 호 『녹두꽃』 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송학운(宋學運 1846 ~ 1939) 님의 증손 송기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학운 님의 증손녀 송기숙입니다. 저는 인삼과 깻잎 생산지로 유명한 금산에서 태어나 서울과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주중에는 대전, 주말에는 금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행정학 겸임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정부 기관의 각종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후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기념재단의 여러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기념식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려고 합니다.

문 선생님의 증조부께서 마흔여덟 살이던 1894년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지요? 금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축은 1894년 3월 초순 금산·진산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금산 관아를 점령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월 22일부터 금산의 부소암과 소라니재[松院峙] 일대에서 김개남 부대와 관군·민보군이 사흘간 벌인 전투를 들 수 있습니다.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네, 증조부께서는 일찍부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금산 지역에 본격적으로 동학이 전파된 때를 18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887년에 충청도 황간[皇澗]의 조재벽(趙在壁)이라는 사람이 동학에 입도하여 옥천, 영동, 청산 등지에서 포교하다가 1890년 무렵부터 포교 활동을 금산과 진산을 비롯하여 인근의 고산과 용담 지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산관아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69(금산초등학교)
1894년 3월 12일과 12월 8일
동학농민군이 점령했던 곳이다.



금산 제원 동학농민군 기포지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200-8 일대)
동학농민혁명 당시 금산 지역에서 봉기한 농민군이 1894년 3월 8일 기포한 곳이다.



금산 소라니재 김개남군 전투지

(충남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 산 22-1 일대)

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과 금산 지역 민보군 간에 189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문 네, 그렇습니다. 조재벽(趙在壁)은 충청도 옥천과 황간 등지에서 활약한 대접주입니다. 충청도 황간, 영동, 청산, 진산은 물론이고, 전라도 금산과 고산, 용담 등지까지 포교 활동을 벌였던 조재벽 대접주는 1892년 10월 공주집회, 11월 삼례집회 그리고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와 3월 보은취회(報恩聚會) 때 많은 교도들을 인솔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조부님이 이분의 영향을 받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거죠?

답 네,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아마 증조부님도 조재벽 대접주와 함께 1890년대 초기부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은 금산과 진산이 동학 교단 내에서 종교적 지향보다는 사회 변혁적 지향이 강했던 서장옥 대접주 세력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황현의 『오하기문』에도 “법포(法包)와 서포(徐包)가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법포는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 포를 뜻하

고, 서포는 서장옥 휘하의 이른바 호남의 대접주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등의 세력을 뜻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호남 농민군이 3월 20일 무장에서 포고문을 공포하고 일어섰는데, 이보다 열이틀 앞선 3월 8일과 9일에 금산·진산의 동학 농민군이 봉기했다는 사실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네, 맞습니다. 금산 지역 동학농민군은 이른바 북접과의 연계성보다 남접 동학농민군과 연계성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증조부께서는 동학농민혁명 초기부터 동학농민군이 크게 패배할 때까지, 혁명의 시작과 끝까지 줄곧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갑오년 겨울에 동학농민군이 패배하여 세력이 약화된 이후 고향 뒷산으로 피신하여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졌잖아요. 이때 가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답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농민군이 패배한 후 일본군은 물론 관군과 지역의 향반들이 조직한 민보군 등이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잡으려고 난리였답니다. 금산에서도 관아의 관원들이 나와서 집을 뒤지고 증조부님 식솔들뿐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증조부님은 고향 인근에 있는 경당리 마을 뒤편의 절골 혹은 산재날이라는 곳으로 피신했답니다. 이때 파평 윤씨인 저의 증조모님이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문 금산군이 지금은 충청남도지만 동학농민혁명 때는 전라도였습니다. 대둔산 입구에서 서북쪽으



로 나아가 이치(梨峙) 고개를 넘으면 금산군입니다.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곳이라 혁명 당시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죠?

답 네, 지금은 교통편이 차량 중심이잖아요? 혁명 당시에는 말(馬)이나 도보(徒步)가 이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도로 여건 등이 지금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죠. 당시에는 금산이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여서 대둔산을 호남의 관문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대둔산을 지나 이치를 넘어 금산, 진산, 청산, 영동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군량미(軍糧米) 확보를 위해 일본군이 호남을 점령하려고 할 때 권을 장군과 금산의 의병들이 이치(梨峙)에서 일본을 크게 물리쳐서 침략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이렇듯 금산이 지리적으로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때도 금산을 아주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문 동학농민군은 정규 군사 훈련을 받고 근대적인 신무기까지 갖춘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를 극복하지 못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증조부님이 금산의 산자락에 숨었고, 증조모님

등의 지혜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증조부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답 저의 할아버지(송철)께서 남기신 회고록을 읽으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송학운 증조부님의 삶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회고록에 따르면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 실패 후 1908년에 기독교에 입교해서 고향에 개척교회를 세워 30년간 장로로 시무하셨고, 1939년 1월 4일 9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증조부님은 당신의 아들이자 저의 할아버지이신 송철님을 선교사가 세운 전주 신흥학교로 보내 신학문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즉, 증조부님은 시대의 변화를 미리 읽고 대처하신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답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저의 조부님(송철, 1896~1986)이 남긴 『송철 회고록』(1985년 간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고록을 바탕으로 2006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참여자와 유족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참여 사실이 확인되어 등록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의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전략) 선친께서는…(1894년) 동학혁명군에 가담하였고, 혁명이 끝난 이후 1906년에 정토종 부회장(淨土宗副會長)을 거쳐 그 이듬해는 금산 청년회장으로 신문화 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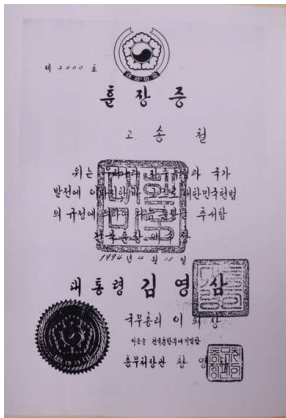
다...(중략) 나의 선친은 요행히 탈출하여 생명을 건지셨으니 내 어머니께서는 막 태어난 핏덩어리와 같은 나를 업고 피난의 물결을 따라 그리고 남편을 찾아다니느라 갖은 고생을 다하셨다. 관군은 매일 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을 찾아와서 선친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서릿발 같은 문초를 했다. 그러니 내 어머니께서는 그런 관군의 서슬에 얼마나 고생하셨는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관군이 끝내 아버지를 잡지 못하자 아버지의 사촌 동생인 나의 오촌 당숙(末畵畵)을 잡아다 태형으로 고문하면서 아버지의 행방을 캐물었다. ... (중략) 나는 선친께서 동학혁명군에 가담하여 당신의 행방을 관군이 그토록 찾을 만큼 주동적 역할을 하신 데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학혁명군이 전주 점령 후 관군과 화의할 때 제안한 12개 폐정개혁 조목에서 나타나듯이 내 선친은 위대한 혁명가였기 때문에, 그리고(나는) 그 혁명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 증조부님은 돌아가신 후 어디에 모셨는지요?

답 집안의 선산인 금산군 부리면 질구지(선원리)에 모셨습니다. 이전에는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에 묘가 있었는데, 이장(移葬)하였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유사한 아픔이 있겠지만 불이리에도 큰 아픔이 있습니다. 1894년 겨울에 토벌군에게 쫓긴 동학농민군 10여 명이 이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을 숨겨주고 따뜻하게 보살폈다고 합니다. 이후 정보를 입수한 토벌군이 불이리에 들이닥쳐 숨어있던 동학농민군을 찾아내 학살하였고, 이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위령제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당시 치참하고 긴박했던 상황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그러했듯이 선생님의 증조부님 또한 목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집안 내력을 보면 대대로 애국자 집안이신데요. 송학운 증조부님의 아들(송철), 그러니까 선생님의 할아버지 또한 독립유공자이시죠? 증조부님과 조부님이 모두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독립유공자라 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답 네, 그렇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조선은 일제강점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반란 사건으로 왜곡되고, 참여자는 반란군으로 매도되잖아요. 혁명에 참여했던 후손들은 자기 집안의 어른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할아버지(송철)께서는 문집을 남기시면서 당신의 아버지 송학운 님이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기록하셨습니다. 증조부님의 영향을 받은 할아버지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한 홍범식 금산군수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비분강개하여 그 길로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 일제의 폭압이 하도 극심하여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여의치 않자 할아버지께서는 1916년 상해를 거쳐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승만 박사를 만나 ‘대한인동지회’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한인동지회 북미총회 총회장직을 맡아 활동하



고 『한국의 소리』라는 언론지를 만들어 미국인들에게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해방 후 국내 좌우 대립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때에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마련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이런 활동이 확인되어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습니다.

문 선생님의 집안 어른들께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네요. 선생님의 집안은 물론 금산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많은 역사와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귀한 내용들이 잘 계승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할일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것은 금산 지역에서 이루어진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에는 기념일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185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된 동학농민혁명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혁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동학농민혁명 = 전라북도 정읍’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혁명에

서 정읍이 갖는 가치가 크지만, 금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봉기한 것도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이 낳은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만민평등 세상을 이룬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이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일 항쟁이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문 긴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빠뜨린 얘기나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 네, 100년 전에 옳았던 일은 100년 후인 지금도 옳습니다. 나아가 100년 전에 옳지 않았던 일은 100년 후에도 옳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 보국안민 정신은 100년 전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습니다. 때문에 100년 후에도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도 같다고 봅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국왕을 인질로 잡고 국정을 농단하자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학농민군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루속히 바로잡아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문 네, 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뿌리를 생생하게 느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where I vividly felt the roots of Korean democracy.

Thomas Giammarco(토마스 지암마르코) / 미국(America)

He came to Korea in 1995 and has been teaching English to students for 29 years. Since 1998, he has been working 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and the Director of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 Support Center at Wooseok University in Wanju-gun, Jeonbuk State.

토마스 지암마르코는 1995년에 한국에 와서 29년 동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1998년도부터 우석대학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영어교육과 교수와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2024.2.20.)

번역: 오진경(『녹두꽃』 편집자)

I came to Korea in 1995 and have been living here for 29 years.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taught English to students. In 1998, I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of the English Education department and at the same time as the director of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 Support Center at Wooseok University located in Samrye-eup, Wanju-gun, Jeonbuk State until now. Before coming to Korea, I did volunteer work in Malawi in Africa, Jamaica and Leone on the Samoan Islands, As I went t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 realized that the world is wider than I learned and I became interested in the history and culture of many countries.

Since the 1990s, I have learned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history through dramas and movies. Then, by chance, I came across the English version of the 『The Independent』 newspaper published from 1896 to 1899. This newspaper was publish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fter reading all the articles in the newspaper, which were written for three years,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Korean history more deeply.

Last month, an acquaintance who knew that I was interested in Korean history introduced me to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in Jeongeup, Jeonbuk State. So, on February 20th, I visited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with the students I

저는 1995년 한국에 와서 29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1998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소재 우석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동시에 동 대학의 외국어교육지원센터장 직책을 맡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아프리카 말라위, 자메이카, 사모아 제도의 리온 등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세상은 제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1896년부터 1899년까지 발행된 『독립신문』 영문판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최초로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되었습니다. 3년 동안 발행된 그 신문을 읽어서 한국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인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0일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



teach. As soon as I entered the memorial park I felt like my heart opened because the park was so vast. Memorial sculptures were erected throughout the memorial park and there was also a fascinating museum. The exhibits were designed to experience the histo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very vividly.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 only knew that the Donghak Peasants have occupied Jeonju after the uprising in Gobeu, and when Japan invaded Korea, it rose again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military. However, after visiting the museum this time,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the Joseon Dynasty in the 19th century and the context that l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urthermore, I learned about the influenc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n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Among the various memorial facilities in the memorial park, the one that touched my heart the most was the memorial hall. Inside the memorial hall, the names of approximately 4,000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s are engraved on its walls. If we consider the numbers whose names are not even known, the number of participants would have been much more higher. This year marks the 130th anniversa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 think the "world where everyone is re-



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드넓은 공간에 펼쳐져 있는 기념공원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확 트였습니다. 기념공원 곳곳에는 기념조형물이 세워져 있었고, 박물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전시물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동학농민군이 고부에서 봉기한 후 전주를 점령했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자 다시 일어나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물관을 돌아본 후 19세기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과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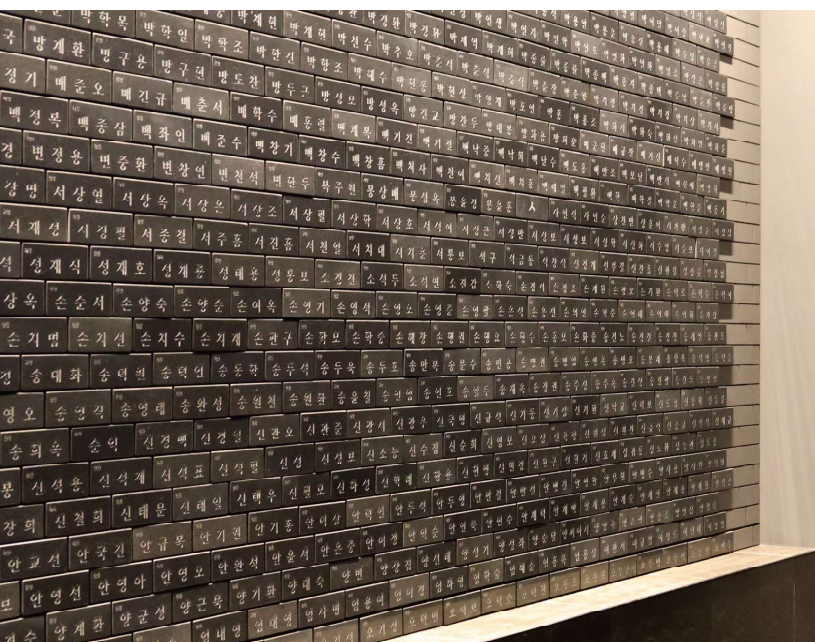
기념공원의 여러 기념시설물 중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추모관이었습니다. 추모관 내부 벽면에는 약 4천 명의 동학농민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농민군을 생각하면 참여자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라고 합니다. 130년 전에 동학농민군이 꿈꾸었던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근현대 역

spected" that the Donghak Peasants dreamed of 130 years ago is the basis of the impartial world we live in today. I am deeply grateful to my acquaintance who encouraged me to visit the memorial park to learn in depth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hich becam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in Korean modern history. I also highly recommend those who plan to travel to the southern part of Korea to visi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in Jeongup.

사에서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제게 기념공원 방문을 권유하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남부 지방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토마스 교수와 학생들



추모관에서 묵념하는 토마스 교수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정읍시에서 파견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해설사 김영순입니다. 2024년 1월 30일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온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정읍에 살고 있어서 평소에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해설사 생활은 올해로 14년째인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이번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기념관에서 해설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애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념관에는 많은 분이 오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특히 애정이 갑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여기에 꼭 기억해야 할 것과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기념공원에 답사오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아이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해설사로서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아이들에게도 한국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세계스카우트잰버리 행사 때 기념관에 온 아이들과 사발통문을 만들었던 것이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외국인들에게 알렸다는 것이 참 뿌듯했습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입니다. 100주년이었던 1994년 정읍에서 걸개그림을 들고 시가행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정읍제일고등학교지만 그때는 정읍농고에서 행사가 크게 열렸습니다. 어느새 130주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읍 지역민들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황토현에서 농민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국내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학농민혁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



김영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해설사(2024. 1.)

로도 등재되고 참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낍니다. ‘반란’으로 인식되었던 역사를 ‘혁명’으로 바로 세우고 기념일 제정, 정부 주관 기념식,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헌신하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대원들과 함께(2023. 8.)



정다연 /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2024.1.)

혁 명



1894년,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바라며 일어났던 동학 농민혁명은 저에게 친숙한 역사입니다. 저는 정읍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황토현과 만석보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자주 가 볼 수 있었고,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지배층의 탐욕으로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고 신분제가 공고하던 시대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파격적인 사상을 지향하고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그 실천의 주체가 바로 기층 농민들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온몸으로 추구했던 이들은 신분제 아래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던 힘없는 농민들이었다는 점이 참 놀라웠습니다.

2024년,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30년 전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세상과 그 정신을 많은 사람이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수민 / 목포대학교 토목공학과 졸(2024. 1.)

저는 정읍에 살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식은 학창 시절 배운 게 전부였는데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 영상을 보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좀더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최초 승전일(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지금까지도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이 아닌 ‘동학농민운동’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역사 교과서의 기술을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군은 낡은 신분제도를 바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유와 평등이지만 1894년 당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올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1894년 갑오년의 선조들이 외쳤던 숭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규 / 원광대학교 반도체 디스플레이학과 3학년(2024. 1.)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잘 몰랐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방학 기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방문하고서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조금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공원에는 박물관, 추모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조형물들이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큰 규모의 기념공원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년을 맞는 특별한 해라고 합니다. 저는 130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탄압에 지친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반란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에 나라를 구하고자 했으며, 신분제라는 낡은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자 일어난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혁명'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역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에 뿌듯합니다. 세계 어느 혁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와 같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직 잘 모르는 분들에게 동학농민혁명박물관 방문을 권유합니다.

음악 창작극 「이소사」



「동학농민혁명렬사 이소사像」, 박홍규작

2023년 12월 21일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석대들을 내달린 아름다운 꽃, 이소사'라는 주제의 음악극이 무대에 올랐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1894년 12월 장흥에서 벌어진 석대들 전투 등에 참여한 여전사(女戰士) '이소사(李召史)'이다. 대본은 고(故) 이이화 역사학자의 저서 『동학농민혁명사』 등을 바탕으로 2022년에 완성되었으며 '2023년 전남 문화예술 브랜드 육성 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수작이다. 이날 공연에는 장흥 군민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정신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 단체 관계자 등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장흥취회



동학농민혁명 130년
제1회 전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장흥취회

일시 2024. 1. 12.(금) 오후2시~13일

장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최 동학농민혁명전국기념사업회

주관 전국동학농민혁명창립총회준비위

후원

특강 박홍규 동학번화 작가
유적지답사 : 장흥 동학무명농민군 묘역 참배
장흥역도

한반도에 패배하리라
그립하녀원하승리하리라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2024년 1월 12일 전남 장흥군 일대에 서 전국에서 활동하는 기념사업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흥 취회(長興聚會)'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제4묘역 '동학농민혁명군 묘역'에서 참여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문 낭독, 장흥지역 유적지 답사, 박홍규 화가의 역사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흥군 장흥읍 총렬리 제암산에 자리한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제4묘역에는 1894년 석대들 전투 등에서 전사하였으나 연고를 확인하지 못한 무명(無名) 동학농민혁명군 1,699분의 유골이 모셔져 있다.

창작 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



임진택 명창



왕기석 명창



송재영 명창



2023년 12월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창작 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이 공연되었다. 정읍시 지원으로 창작된 이 작품은 2022년 10월 '전봉준 유적'(사적 293호, 정읍시 이평면 조소리)에서 시연(試演) 후 전주, 정읍, 서울에서 공연하였다. 이후 2023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다시 무대에 올려졌다.

이번 공연에도 임진택(창작판소리연구원장, 예술감독), 왕기석(전 국립민속국악원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송재영(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명창이 무대에 함께 올랐다. 임진택 소리꾼은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민국협(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의 임원으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기획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 동상 참배



2024년 1월 2일 서울에서 활동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관계자들이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서울 종로구 서린동)을 찾아 참배하였다. 2024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뜻깊게 보내자는 결의를 다진 이날 행사에는 사단법인 전봉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임원 등이 참여하였다.

신영우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은 “지나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인이 기리고 보존·전승해야 할 가치 있는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130주년을 맞아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29주년 상주동학농민혁명 위령제 및 제10회 동학문화제



지난해 12월 28일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대표:조원희)가 주최하고, 상주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으로 경북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대공연장에서 제129주년 상주동학농민혁명 위령제 및 제10회 동학문화제가 열렸다.

‘1894 동학농민혁명의 그 함성 다시 광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진혼무, 위령제, 영상상영, 시 낭송, 노래 공연, 사물놀이 판굿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전후로 솟대 만들기, 판화 체험, 박홍규 화백 판화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8주기 기념식 및 동상 제막식



축하공연 | 왕기석 명창, 창무극 '천명' 중에서



봉정식



기념사 | 진윤식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환영사 | 심덕섭 고창군수



감사패 증정 | 좌로부터 국경오·심덕섭·강관욱



감사패 증정 | 좌로부터 신영우·신순철·정남기·진윤식·강용면·문병학

2024년 1월 10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8주기 기념식이 열렸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봉정식,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경과보고 및 감사패 증정,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 이어 고창군청 앞 회전 로터리 소공원에서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첫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심덕섭 고창군수, 이경신 고창군의회 부의장,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기념단체 관계자, 고창군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



식전 공연 | 판소리(왕기석 명창)



축사 |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사발통문 작성 재현



전국 동학농민혁명기념단체 임원진 소개

2024년 2월 19일 정읍시 이평면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가 펼쳐졌다.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공동주최, (사)동학농민혁명고부농민봉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부농민봉기를 재현한 '진군행렬'을 시작으로 기념식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감사패 수여, 기념사, 격려사 축사, 전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소개, 사발통문 작성 재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염영선 의원, 최금희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청 동학농민혁명고부농민봉기기념사업회 이사장, 심재식 정읍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유족회 회원 및 전국의 17개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등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였다.

고부농민봉기는 1894년 1월 10일(음) 고부군수 조병갑의 억압과 착취에 고통받던 고부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고부 관아를 점령한 사건이다.



녹두꽃, 다시 피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념재단에서는 기념공원 생태탐방 <녹두 꿈>, 미션을 해결하는 역사탐방 <1894년, 녹두꽃의 기억>, 박물관 온라인교육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박물관 스스로 학습 <1894! 가보세 갑오세>, 기념관 프로그램 <1894 시간여행>, <녹두 꾸러미 탐험대>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군산 중앙중학교(2023. 10. 26.)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 김제한들중학교(2023. 11. 30)



기념공원 <1894년 녹두꽃의 기억> \ 정읍 한솔초등학교(2023.10.27)



기념공원 <1894년 녹두꽃의 기억> \ 정읍 한솔초등학교(2023.10.27)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 정읍 화평의 집(2023.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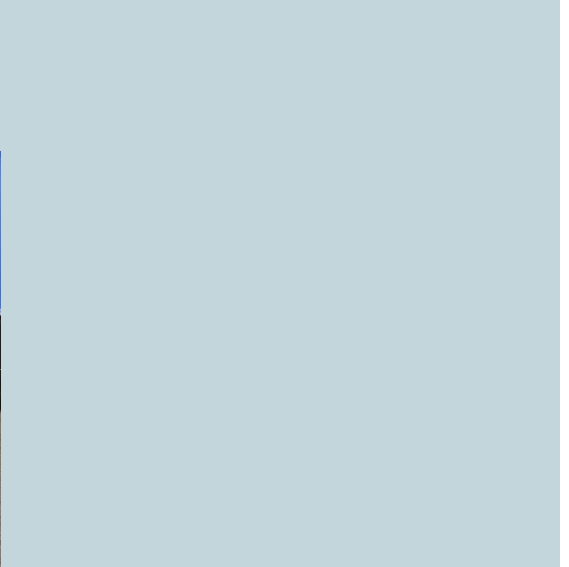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ㄴ 김제 보담장애인주간활동센터(2024.2.16.) ㄴ 정읍 서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2023.12.14.)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ㄴ 전주 관봉초등학교(2023.11.1.) ㄴ 부안 동초등학교(2023.11.2.)



박물관 <1894, 시간여행> ㄴ 고창 신림중학교(2023.11.15.)



박물관 <1894, 시간여행> / 임실 오수고등학교(2023.11.3.)



박물관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나는 동학농민군>(온라인)
/ 미국 디트로이트 세종학교(2023.11.4.)



박물관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온라인)
/ 세종 다정초등학교(2023.11.13.)



박물관 <1894, 시간여행>
/ 김제 한정중학교(2023.11.30.)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 일반 관람객(2023.11.11.)

2024년 교육체험·해설 프로그램

박물관 / 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대상	장소	일정
상설	1894! 가보세 갑오세	(전국)모든 대상	박물관	1~12월
온라인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전국)초등 4~6학년	온라인 (ZOOM)	3~11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나는 동학농민군	(국외)한인 학교		
기념공원	녹두 꿈	5세 이상 / 단체	연수동, 기념공원, 전시관	4~11월
	1894년, 녹두꽃의 기억	초등 4학년 이상 / 단체	연수동, 기념공원, 전시관	

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기념공원 외부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국)초·중고	해당 학교	3~12월
답사	1894 시간 여행	(전북특별자치도)중·고등	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유적지	6~11월
	녹두 꾸러기 탐험대	(전북특별자치도) 초등 5~6학년		
교원직무연수	동학농민혁명 바로 보기	(전국)초·중등 교원		7~8월

해설 프로그램

구분	해설 내용	대상	일정
기념공원	기념공원 내 조형물, 생태해설 등	모든 대상 (단체)	상시
박물관	박물관 전시		
기념관	기념관 전시		

※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1894.or.kr>)를 참고하세요. 문의: 063. 530. 9400

보도일	언론사	기사 제목
2023. 11. 01	연합뉴스	정읍 동학농민혁명공원·불멸,바람길, 지역문화매력 100 선정
2023. 11. 03	KBS뉴스	한국기협 소속 언론인들, 정읍 동학 유적지에서 '연수'
2023. 11. 03	전라일보	정읍 만석보 동학농민혁명 상징공간 위상 재조명
2023. 11. 03	천지일보	"만석보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핵심유적지'로 성장시켜야"
2023. 11. 03	뉴시스1	전국 언론인들, 정읍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찾아 역사적 의미 되새겨
2023. 11. 04	뉴시스	완주에서 129주년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식 개최
2023. 11. 04	전북도민일보	만석보 위치 고증·활용 방안 모색 학술대회 개최
2023. 11. 04	더팩트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들, 3~4일 정읍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
2023. 11. 05	전북일보	"반봉건·반외세 함성 기억하겠습니다"... 전국 언론인들, 정읍서 동학농민혁명 숨결 찾기 연수
2023. 11. 13	충청일보	예산군,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개최
2023. 11. 14	무등일보	동학에서 의병으로... 숭한 민중이 스러져 간 피의 격전지
2023. 11. 15	경남도민신문	하동 동학농민혁명군 129주년 위령식 거행
2023. 11. 15	전북일보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위치 규명 학술대회 개최
2023. 11. 16	아주경제	동학농민혁명 시작점... 정읍 고부관아 복원 추진
2023. 11. 16	전북중앙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고부관아 복원 공청회
2023. 11. 21	서울신문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교과서는 '동학농민운동' 엇박자
2023. 11. 22	전남일보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학술심포지엄
2023. 11. 23	전주 MBC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사업
2023. 11. 24	브레이크뉴스	'제4회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 학술대회'...11월 27일 열려
2023. 11. 24	서울신문	"동학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2023. 11. 26	전북중앙	군산, 동학농민혁명 활발... 주요 거점지역 발견
2023. 11. 30	노컷뉴스	'동학농민혁명군 격전지' 전주 완산칠봉, 관광 명소화 추진
2023. 11. 30	아시아투데이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의안심사 위한 비교 견학
2023. 12. 05	충남일보	공주시 농민회,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환영대회 개최
2023. 12. 05	뉴시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 '동학농민혁명 연구' 학술지 창간
2023. 12. 05	연합뉴스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창간... 연간 2차례 발간
2023. 12. 05	전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창간
2023. 12. 06	전주 MBC	"항일 운동의 밑거름"..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창간
2023. 12. 08	한겨레	동학 '최후의 전투' 장흥서 특강... "무명 농민들 기억해야"
2023. 12. 13	새전북신문	동학을 주제로 세계 최초로 음원을 내다
2023. 12. 20	연합뉴스	충남 동학농민혁명 역사 한눈에... 홈페이지 개설
2023. 12. 21	유교신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동학여지도 공개
2023. 12. 24	오마이뉴스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나고 자란 곳
2024. 01. 04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군 최초·최대 전승지 정읍 황토현전적, 전승지로서의 위상 강화
2024. 01. 07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의미와 미래... '세계화 실행' 때가 되다
2024. 01. 08	전북도민일보	동학혁명 기포지 '고부'로 20년 만에 밝히다

보도일	언론사	기사 제목
2024. 01. 10	연합뉴스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 동상, 고향 고창군에 건립
2024. 01. 14	한겨레	동학 130주년 맞아 일본군 총탄에 이름 없이 잠든 동학군 위로
2024. 01. 14	무등일보	2차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독립 유공 서훈 촉구
2024. 01. 15	광주일보	'전국동학농민혁명' 연대 출범
2024. 01. 21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으며
2024. 01. 30	연합뉴스	서울대 규장각,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전시
2024. 02. 01	오마이뉴스	동학농민혁명군 묘역 정비 이루어져야
2024. 02. 04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선양 단체 사업비 지원
2024. 02. 05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학농민혁명 조례안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2024. 02. 06	뉴스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규 참여자 121명 추가 발굴…추모관에 명패 각인
2024. 02. 14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시초' 정읍 고부봉기 재현행사 19일 개최
2024. 02. 25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녹두장군 캠핑장 3월 1일 개장
2024. 02. 25	전북일보	동학농민군이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
2024. 02. 27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맞이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서 웹툰 공모전 시상식

독자 설문조사 및 퀴즈

1. 이번호 『녹두꽃』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녹두꽃』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3.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몇 주년인가요?

- ① 100주년 ② 130주년



QR 코드로 발송이 어려운 경우 설문과 정답을 작성하여
juille4040@1894.or.kr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여 2024년 5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신청안내



1. 대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 동학농민혁명 당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
- 기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 외증손, 외고손 포함)



2. 서류 및 제출방법

가. 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3.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063-530-9434 ~ 5)

○ 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unesco

Inscribed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Memory of the World

동학농민혁명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